

□ 좌담

국립국어연구원이 세워야 할 좌표



-
- 때 1991년 3월 18일(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40분까지
곳 국립국어연구원 회의실
사 회 안병희(국립국어연구원장)
참석자 강신항(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석득(연세대학교 교수)
김완진(서울대학교 교수)
이기문(서울대학교 교수)

(가나다순)

.....

국립국어연구원 개원에 즈음하여

사 회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대로, 국립국어연구원이 작년 11월에 법제화가 되고 지난 1월 23일에 지금 이 자리에서 헌판식을 가져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국어연구소, 즉 국립국어연구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운영위원으로 계셨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국립국어연구원이 세워야 할 좌표’라는 주제로써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임의 단체였던 국어연구소가 국립 기관으로 승격되는 데 알게 모르게 많은 힘을 쏟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승격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 국어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셨던 이기문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문 무엇보다도 먼저 승격을 축하합니다. 과거에 국어연구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 때에야 문교부에서 청탁하는, 최소한의 일만을 했었는데, 이제 국어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학계에서 바라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말 명실상부한 국어연구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김석득 과거에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의견들, 또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번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을 계기로 그것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 회 강신항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강신항 과거로부터 책임 있는 국어 연구 조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근본 목적은, 8·15 해방 이후 언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태도나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갑론을박들을 되풀이하게 되니까 그런 것에 앞서서 먼저 광범위하고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리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관 주도하에 무슨 일을 한다면 국어연구원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언어 현실을 조사한 연후에 그 현실에 따라서 언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하는 방향 설정은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완진

‘순화’는 대개 두 가지 문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선 한자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개화기 이후 들어온 일본어와 서양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숙해서 개운치 않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층 격이 높아진 인상을 주는 ‘국어연구원’으로 발족하게 되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어울리게 큰 일을 해 나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할 일

사회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좀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갈 방향은 이렇습니다. 먼저 연구원 인력이라든가 시설 확충 문제 등 연구원 내부 문제를 국어연구원의 금년도 사업과 관련시켜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연구원과 학계, 연구원과 국민과의 관계라는 문제를, 그리고 끝에 가서 연구원의 위상에 대한 제의와 충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주요 연구 사업은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전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 담당 기구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연구 기구는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언어 정책, 언어 규범에 관한 것과 언어·문자에 관한 것, 그리고 그 개선 방향, 문자의 과학화, 기계화 등의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2부는 국어 순화와 남북한 언어 문제, 그리고 국어의 역사적인 연구, 방언 조사·연구 등을 다루

개원에 즈음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 잘 새겨서 듣겠습니다. 다음은, 국어국문학회와 국어학회, 두 학회를 맡고 계신 김완진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현판식 때도 오셨는데 도움 말씀 주실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완진 국립 기관으로 출범했을 뿐 아니라 명칭부터가 ‘국어연구원’으로 개칭된 것은 대단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국어연구소’라고 했을 때에는 이웃 나라의 유사한 기관과 그 명칭이 너무 비

고, 3부에서는 언어와 문학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국어 사전, 한자 문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의 연구 사업도 1부, 2부, 3부의 업무들과 관련되어서 짜여져 있습니다.

언어 정책의 기반 조성에 대하여

사 회 91년도 연구 사업 중 먼저, '언어 정책의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을 연구 1부 담당으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릴다면,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나온 언어 정책에 관한 논문 혹은 논설 등을 모두 망라해 총목록을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언어 정책에 관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관한 우리 학자들의 의견이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앞으로 언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로 삼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양 3국의 언어 정책 전문가들을 초빙해 국제 회의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언어 정책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의에서의 토론 주제는 두 가지로 제한해서 잡았습니다. 즉 '외래어 수용'에 관한 것과 '한자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만은 별도로 하고, 중국, 일본, 우리 나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북한 학자도 초청할 생각입니다. 사실, 위의 두 문제는 우리 나라 언어 정책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 회의를 하면서 우리 나라 언어 정책의 기반을 다져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 회의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추진 계획, 방향 설정의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함 우선, 한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주로 상용 한자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만, 실제로 언어 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 것은 약자 문제입니다. 약자는 동양 3국이 제각기 독특한 특징들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우리 나라도 어떤 확실한 방침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식 약자를 취할 것인가, 중국식 약자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대만처럼 철저히 약자를 배제할 것인가 하는 입장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어 순화, 순화' 하

8 새국어생활 제1권 제1호('91 봄)

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로 찾거나 아니면 외래어를 완전히 배제하는 문제나 하는 것인데, 최석주 씨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아무리 외래어가 범람한다고 하여도 전체 어휘의 5% 내에서 쓰고 있는 셈이어서 그렇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유심히 살펴보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외래어를 한 마디도 쓰지 않는 분도 보게 됩니다. 신문이나 잡지, 간판이나 상호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외래어를 많이 쓴다고 개탄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석득 언어 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책에 반영할 토대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의 수집 없이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언어 정책에 관한 국제 회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국립국어연구원 개원에 즈음한 국제 회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동양 3국이 모여서 공동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논의한다면 매우 심도 깊은 논의와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10월에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감이 있지 않나 우려됩니다. 이 점 깊이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 회 이 사업들은 사실 연구원이 개원된 이후에 비로소 계획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맞추어 연구 사업을 확정하느라고 급히 추진된 것이어서 졸속의 염려는 있습니다.

이기문 국어연구원에서 이제 국제 회의까지 개최한다고 하니, 지난 국어연구소 시절하고는 너무 격차가 나는 것 같아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논저 목록 발간 사업은 참 좋은데, 아까 강신항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연구원 자체가 언어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 조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국어연구원에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조사해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김완진 국제 회의가 종종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는 일이 많고 비슷한 주제를 갖고 여기저기에서 몇 년 간격으로 되풀이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국어연구원이 이런 행사를 매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몇 년에 한 차례씩 비슷한 회의를 하면서 방향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탐구하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 결과들을 언어 정책 수립에 활용하거나 국어연구원 사

업에도 반영하고 또 연구원이 해 온 일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의뢰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업적들을 쌓아 나간다면 장기적인 성과도 기대해 볼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저 자신도 국제 회의에 여러 번 참가해 논문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여 보았습니다만, 결과가 그리 크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가 이번 국제 회의를 개최하면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저 스스로 느낀 점을 특별히 주의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 신 황

책임 있는 국어 조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근본 목적은, 언어 정책을 입안함에 앞서 광범위하고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순화의 실효성 있는 방안

사회 다음으로, 국어 순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개별 연구 사업이 많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한자어와 외래어 실태 조사, 간판·상호 등에 나오는 외래어 실태 조사, 안내 방송 등에 나오는 언어의 실태 조사, 그리고 현재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화법, 즉 언어 예절의 표준화 사업, 이런 등등을 국어 순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황 국어 순화 문제는, 한자어를 너무 많이 쓰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데도 우리말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상한 한자를 찾아 쓰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선일보사와 국어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 표준 화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언어 예절에 관한 것은 대부분 유교식 전통 사회에서 통용되던 것들이라 지금 현대 사회에는 걸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가령 여성들이 외지에 갔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안부 편지를 쓰면서 곁봉투에

무엇이라고 써야 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보고 '○○○ 여자' 할 수도 없을 터이고 말입니다. 또,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자면, 40대에 들어선 제자의 직함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무척 난감한 상황에 놓인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어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웃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새로운 언어 규범의 제정은 한 개인의 강요된 의견이 아니라 전체의 중의가 모아져서 완성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김석득 이번엔 제가 말씀 드릴까요. 국어 순화 문제가 외래어 관계, 간판, 안내 방송, 화법 등 참 광범위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어연구원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단체에서 이미 연구한 것들을 철저히 수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기관들과 연계 관계를 맺고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연구·조사된 것들을 연구원으로 수렴시킨 다음, 그 다음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 회 좋은 말씀입니다. 김석득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 연구원과 국어학계, 그리고 국어 운동 단체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사실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런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 특별히 신경 써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 밖에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문 8·15 해방 이후 국어 순화 운동한다고 말은 많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행은 없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말로 찾기'라는 책자를 내기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찾아내 성과를 거둔 것이, '벤또'를 물리치고 '도시락'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 말들, 외국어라고 할까, 특히 기술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들은 국어사전에 도 거의 실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수천 단어씩 되고 계속적으로 그 양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말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큰 과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우리말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굳어진 것들은 그런 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 뿌리 내리지 않은 단계에 있는 말들은 잘만 하면 정말 '순화'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국어 순화’ 하면 자꾸만 한자 문제를 들먹이는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김완진 ‘순화’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아까도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개 두 가지 문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선 한자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개화기 이후 들어온 일본어와 서양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웃 나라의 경우지만, 어떤 분은 한자어를 줄이기 위해서 서양 외래어를 적극 수입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답니다. 이럴 경우 어느 쪽을 순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시 대두합니다만, 순화의 개념이나 순화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신함 국어 순화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는 정부 수립 직전 당시 미군정청에서 순화의 방향으로 제시한 세 가지 사항이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말 대신,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쓰자, 한자어 대신 우리말로 쓰자, 우리말에 없는 것은 새로 만들자.” 등인데, 이북에서도 어휘 정리 방안이 이와 똑같았거든요. 아까 기술 분야, 전문 분야의 용어 순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만 해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복점, 건축, 토목 그 외에 농업 분야까지 용어 순화가 거의 돼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이미 해 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실행만 한다 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 회 저희 연구원이 벌이는 국어 순화 사업의 목적은 따지고 보면 국어 순화를 제대로 추진하자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다듬어진 말이 있는데 아직도 외래어가 버젓이 쓰이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남북한 언어 연구의 구체적 방법

사 회 다음은 ‘남북한 언어 차이에 관한 조사’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비슷한 연구 업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인 방향에서 시도하려고 합니다. 즉 ‘김일성 교시를 통해서 본 북한의 언어 정책’과 ‘남북 언어 규범을 통일하는 방안’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남북 대화가 어느 수준에 가면 언어 규범을 통일하자는 제안에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에 대한 대



김석득

이번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연구 결과와 학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집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비책으로 이 연구 사업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문 언어·문자 규범은 남북한이 다 일제 시대 조선어학회가 해 둔 공통 기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다른 분야보다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어학회의 업적이 없었다면 지금의 남북한 언어 차이는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겁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차이 나는 것이 몇 개는 있습니다. '우리말 도로 찾기'에서부터 우리는 '벤또'를 '도시락'

으로 바꾸어서 쓰고 있지만 북한은 '밥곽'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북한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 대변자들이 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는 '상호(相互)'가 일반화된 데 반해서 그쪽에서는 '호상(互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도로 찾기'에서는 '호상'을 추천하기는 했습니다만, 저쪽에서 우리의 '표준어'에 대응되는 '문화어'를 만들어 놓고 그들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잘만 하면 통일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신항 차이, 차이 하지만 그것은 각각의 사전에 실린 표제어를 비교해서 차이를 찾은 것이지, 사실, 논문에서나 일상적인 대화에는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너무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득 그러나 남북한의 언어관은 분명히 다르며, 또 언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견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새 말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조심해서 새 말을 만들고, 그것도 마구잡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의 언어 생활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달라질 터인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에 대해 주의할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쪽 교과서를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뜻

인가는 대개 이해는 되지만 알 수 없는 용어가 상당히 눈에 띄입니다. 통일을 전제로 해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남북한의 언어 차이는 무엇인가,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 회 알겠습니다. 사실 그 언어 차이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석득 선생님 말씀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구 사업, 사업' 합니다만, 사실 '사업'이라는 말만 보아도 이북에서 쓰는 '사업'이라는 말과는 그 의미차가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이북에서의 언어 규범도 우리의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지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차이점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여 년에 걸쳐 지난 88년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각 세부적인 항을 둘러싸고 그 의미 해석이나 용례 적용에 있어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같은 체제 아래에서도 하나의 통일안을 만드는 데 이러하다면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언어 규범을 통일시키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저희 나름대로 하나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고, 계속해서 어휘의 차이, 용어의 차이, 특히 이념과 결부된 단어들에 대해서도 연구·조사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강신항 이북에서 한없이 우리말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70년대에 한번 반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말 만들기도 너무 지나치면 백성이 못 알아듣는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던 거지요. 따라서 북한에서도 무턱대고 새 말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았는데, '로동신문'의 경우 48%가 한자어였다는 통계가 있더군요.

사 회 그래도 이북에서 고유어를 많이 살려 쓰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편, 실지로 이북에서 월남해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우리는 안 쓰는 일제식 외래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윤배반의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문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방 뒤 우리 쪽에서는 외래어가 원음에 가깝게 많이 교정되었는데, 그쪽에서는 대개 안 고쳐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상 생활에서는 일제식 외래어가 많을 겁니다.

김석득 거기서는 표준말을 평양 사람들이 쓰는 말을 중심으로 '문화어'

라고 규정해 놓고 있긴 하지만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고 대부분 서울말을 표준어로 쓰는 것 같던데…….

강신항 이북 사람들 말을 잘 들어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전투적인 느낌을 주었는데 요즘은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서울말에 가깝게 말입니다. 이것이 남북 회담의 영향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기문 그렇습니다. 앵커맨 같은 사람들의 말씨가 상당히 달라졌지요.

번역에 나타나는 국어 오용

사 회 다음으로는 연구 3부의 사업인 번역에 나타나는 국어 오용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법적으로 잘 못 쓰이거나 특히 번역에 많이 나타나는 국어 오용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기문 우리말 교육에서, 중·고교 영어 선생님들의 국어 오용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구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되어진다’든가,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부러졌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영어를 축자해석해서 이중 삼중으로 피동형을 쓰는 것이 그 일례가 될 것입니다. 요즘 ‘보여진다,’ ‘보아진다’ 하는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일전에 TV에서 하는 영어 강좌를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전부 그런 식이에요. 우리말이 너무 지나친 번역체, 그것도 기형적인 번역체에 의해 침투당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사 회 요즘은 없어졌지만, ‘경서언해’에서 온 ‘씨,’ ‘히여곰’ 하는 번역체 단어가 쓰인 적도 있었습니다만.

김완진 어떤 한 분야에서 오용이 완전히 굳어져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수도 있습니다. 가령, 수학에서는 ‘만족하다’라는 동사를 타동사로 쓰는 전통이 있습니다. ‘-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을 만족하는 조건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수학하는 분들에게 이런 점을 지적해 주면 논리적으로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수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어서 자기 혼자서만 고친다거나, 남보고 고치라고 이야기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오류가 일본에서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일본 수학자의 저술에서 ‘-을 만족하는 조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고쳐지기 힘들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만족하다’가 오히려 타동사로 사전에 등록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감신환 번역을 할 때 꼭 간결한 한자어로 하려는 데서 오는 무리도 있습니다. ‘유성음,’ ‘무성음’을 예로 들더라도 그렇습니다. ‘목청떨리는 소리,’ ‘목청안떨리는 소리’로 했으면 참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유성음,’ ‘무성음’ 하나까 어떤 것은 소리가 있고 어떤 것은 없나 해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으니까 그걸 아무런 반성 없이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기문 그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 몇 개로 되어 있는 술어를 한자어 하나로 바꾸려고 하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만, 외국어 번역에서 쉬운 말로 쓰면 길게 될 경우에 그것을 다 붙여 쓰느냐 혹은 -(붙임표)를 단어 사이에 넣고 붙여 적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석득 문학 작품뿐 아니라 자연 과학 계통, 특히 수학에 관계되는 책 중에는 일본 책을 번역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오용이 실제 언어 생활에 그대로 반영될 터인데 이를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로 대두할 것입니다.

사 회 앞으로는 국정 교과서나 검인정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오용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수학 교수에게서 미국에서 수학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수학 교과서 중의 윗문은 반드시 국어 교수가 말도록 되어 있고 그 일에 대한 보수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수학 교수나 출판업자가 적당히 의논해서 토씨나 맞춤법 정도만 고쳐서 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 문

국어연구원이 문자 그대로 언어·문자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연구 기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언어·문자의 구체적인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기관이므로 책임이 무척 크고 무겁습니다.

국어사전의 편찬

사 회 그리고 마지막 사업이지만,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국어연구소에서부터 계속해 오던 '기존 국어사전에 관한 검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복합어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사전이 어떻게 편찬되며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조사·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국어사전 편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완진 사전 편찬 시에 주의할 점은, 초창기 사전 편찬자들이 빠뜨린 항목을 계속해서 누락시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일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만, 육당 최남선 씨가 30년대에 쓴 책 속에서 서울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는 단어라고 적어 놓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항것'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상전'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적어 두고 있습니다. 한테, 그 말이 사전에 실린 예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사전들을 보충한다, 보충한다 하면서도 다른 학술 용어는 보충하지만, 그것도 학술 서적으로부터 용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사전에서 보충하고 기본적인 것, 현대어이면서 쓰이지 않게 된 단어들의 경우는 누락되는 상태가 계속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문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리더스다이제스트사에서 하는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의 문제를 내기 위해 저는 여러 문학 작품을 읽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읽다가 사전에 없는 단어들은 쪽적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수천 단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조금 잘못된 것도 있고 오자나 탈자도 있고 혹은 방언형도 있으리라고 짐작됩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방언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큰 사전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발간된 모든 간행물 그리고 필사본까지 완전히 조사한 상태에서 나와야 하는데 사전 편찬을 하면서도 아직 한 번도 그런 작업을 거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연구원에서 이를 항구적인 사업의 하나로 설정해, 용량이 큰 컴퓨터를 하나 들여다 놓고 우선 우리 나라 옛날 문헌들에 나오는 단어들을 총망라해서 입력시키는 작업부터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 회 참, 김석득 선생님께서는 연세대에서 하고 있는 한국어 대사전 편찬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는데, 문학 작품의 용례도 다 뽑고 있습니까?

김석득 아, 예. 좋은 나쁜든 우선 다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낱말에 대한 어집들이 너무 지나친 까닭에 빠진 것들은 계속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낱말을 올리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낱말에 대해 어떤 실례를, 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전을 한 번 만들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을 일단 만들어 내면 계속해서 그것을 보수해 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독일에서 사전 편찬하는 곳을 들른 적이 있었는데, 사전을 편찬하자마자 그 보수 작업을 금방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말하자면, 사전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도 말의 변화가 진행중이라는 인식이 그들에게는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전 편찬은 계속적인 수정 작업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 회 이웃 나라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일본의 유명 출판사의 교열부장이 쓴 책의 의하면, 그 책의 저자는 사전 사는 원칙이 있는데 꼭 제 3판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판은 오자가 많고, 재판은 조금 고쳐지기는 하지만 부족하고, 그래도 3판에 가서야 그 출판사로서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사전이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 나라 속담에도 서울에서 3대가 살아야 서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어연구원에서 사전 편찬을 한다면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기문 옥스포드 사전처럼 아무리 큰 사전을 내어도 그 판매권이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상업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나라 국어사전의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어차피 국립 기관에서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사전 편찬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원진 우리 나라 국어사전이 이만한 인구를 가지면서도 그만큼 안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사전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신함 사전을 편찬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할텐데요.

국립국어연구원의 인력 확보 문제

사 회 연구원으로서의 지금 당장 그와 같은 일을 착수할 형편은 못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구 사업을 위해서도 많은 연구 인력이 필요



안 병 희

.....
 국어연구원이 국립 기관이 되면서 '새국어생활'로 제호로 삼은 것은 '국어생활'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과 '국어의 새 생활'이란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합니다만 지금 연구원 연구 인력의 정원은 원장까지 합쳐야 모두 21명입니다. 원장과 각 부의 부장 세 사람을 제외하면 순수 연구 인력은 17명인데, 그 인력조차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립 기관이 되고 나니까 내부적으로 제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신함 한 자리에 천적으로 알고 3, 40년씩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연구원을 하나의 '통과역'처럼 여긴다면 아무런 일도 되지 않을 겁니다.

김석득 어떤 '상징'의 형성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 기관이라고 너무 관의 냄새가 풍긴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연구원' 하면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상징. 형성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따라서 연구 요원들이 2,3년 있다 나가는 곳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땀땀하게 일할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연구원에서 일생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대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애를 좀 써야 하는데,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점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점 신경 써서 좋은 인력, 훌륭한 학자들이 여기에 모여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함 국립 기관의 경우는 연도별로 업적을 내야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만, 1942년에 사천성, 호남성에서 방언 조사한 카드를 대만에 가지고 가서 79년에야 그 업적이 나왔다는데 그런 일을 한 학자도 훌륭하지만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려준 정부 기관의 배려는 더욱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완진 연구 기관의 성격이라는 것은 그 기관이 놓여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전체주의 국가나, 대만의 경우도 그에 준하는 연구 기관인데, 그럴 경우에 연구 기관에 중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일 뿐 아니라 대단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어서

일생 동안 거기에 종사한다는 것이 큰 영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체제의 연구 기관이라는 것들은 대개 다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있다가 우수한 사람들이 빠져나가 대학으로 가거나 하는 공통된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같은 사람이 몇 십 년 있는 것보다 오히려 새로운 지식과 이론으로 무장된 사람이 적당한 시기에 자주 바뀌어 들어온다고 하면 연구 기관을 위해서는 더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국립 기관이라서 몇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전임 연구원 제도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오래 있을 사람이 필요합니다만, 전임 연구원 이외에 원외 연구원 같은 비상근 연구원 제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 기관이라서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국어연구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외부의 저명 교수가 강의 시간 이외에 우리 연구원의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수한 학자를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길밖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과 관련 단체들과의 유대 관계

사 회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연구원과 바깥의 관계, 즉 학계나 국어 연구 기관, 국어 운동 단체 등과의 유대 관계를 어떻게 밀접하게 유지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함 이전의 국어연구소가 학술원 산하에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이나 편집위원의 제도가 있어서 그런 단체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운영위원 같은 제도를 둘 수 없다고 하니 학계와는 오히려 떨어진 기분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는 평의원 제도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연계 관계를 지속시켜 나간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국어 연구원이 학계와 유리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득 각 국어 운동 단체의 사람들과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연락을 가져서 그쪽 소식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운동 단체나 연구

20 새국어생활 제1권 제1호('91 봄)

기관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 교환은 공식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 회 상당한 업적과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연구 기관들과 선별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히 고려할 문제입니다.

이기문 국내 학계와의 공동 발표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지 '새국어생활'의 발간 방향

사 회 다음에는 '새국어생활' 간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전에 '국어생활'이 총 23호, 1990년 겨울호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국어연구원이 국립 기관이 되면서 정부 간행물 등록법에 따라 제호를 '새국어생활'로 바꾸어서 이번 봄호를 시작으로 나가게 됩니다. '새국어생활'을 제호로 삼은 것은 '국어생활'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과 '국어의 새 생활'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이 제호는 담고 있습니다. '새국어생활' 간행에 부쳐서, 필진이나 배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문 국외의 한국어 전공자들에게도 배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국어생활' 제13호 특집은 '맞춤법과 표준어'에 관한 것이었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학술진흥재단에 부탁해서 100부 정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사 회 지금까지는 필진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필진의 연령층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연령층도 좀 낮추고 필진도 개방하라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할 그런데 젊은 층들은 언어 생활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득 그런데 편집위원회도 있습니까?

사 회 편집위원은 없지만 자문위원은 둘 수 있습니다.

김원진 자문위원의 연령을 낮추면 필진 연령도 자연히 낮춰지지 않을까요?

이기문 게재되는 내용은, 실천적인 성격의 글과 연구 논문의 성격을 가진 글을 반반으로 나누어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판도 되도록이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책을 기증할 수는 없고, 한때는 교육부

를 통해 중·고등학교에 1부씩 배부했지만 너무 한정적이었거든요.
 사 회 ‘국어생활’은 지금까지 논문집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는 실천적
 인 면에도 신경 써서 편집을 할 생각입니다.

대민 봉사 위한 ‘가나다 전화’ 개설

사 회 그리고 대민 봉사의 하나로 연구원에서 ‘가나다 전화’를 개설하
 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는 연구원이 한 명씩 교대로 맡아서 답변을 하
 고 밤에는 녹음을 하는데 그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언어 규범,
 국어 순화, 언어 예절, 고유어 이름 등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김석득 전화 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전문 기관에서 전문 용어를 정
 리해서 자기네들끼리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원으로 자문을 구
 해서 그 용어들을 통일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 회 연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대민 봉사는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 바라는 것

사 회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
 면 합니다. 국어연구원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한 마디로 ‘이랬으면 좋
 겠다’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환 온 국민, 혹은 정부에서도 연구원을 설립하면서 기대한 것은, 모
 든 학회가 이룩해 낸 그 업적의 총집약체로서의 국어연구원이 존재해
 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학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론과
 업적을 연구원이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득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 포괄해서, 한 쪽으로 기
 우는 인상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김원진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언어 예절이나 언
 어 정책 등도 그러한 사회의 발전 방향과 속도에 차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천년대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지금부터 50년 뒤의
 사회에 잘 맞는 언어·문자 정책을 예견하고 그러한 힘을 준비할 수 있
 는 역량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기문 문자 그대로, 언어·문자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연구 기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국어연구원은 언어·문자의 구체적인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기관이므로 그 책임이 무척 크고 무겁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이 규모로는 그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요원도 최소한 지금의 두 배 정도는 돼야 하고 연구원의 위상도 더 승격시켜야 하리라 봅니다. 아직까지는 정부 기관의 행정적인 틀이 연구원 같은 기구를 제대로 움직여 나가는 데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부적합한 면도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국어연구원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좋은 연구 기관이 되도록 많은 배려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 회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어연구원의 체제를 정비하고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는 데 오늘 나와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하신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우리 연구원이 제자리를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